세상 패싱과 하나님 존재감

(전도서 8:1~17)

1.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2.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3.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4.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오늘 말씀 중심으로 <세상 패싱과 하나님 존재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세상 패싱과 하나님 존재감'
세상은 패싱하고 하나님의 존재감은 느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몇 장면 나오지 않는 조연이 주인공 못지않은 큰 인상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조연을 향해 미친 존재감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존재감은 마음이 쏠리고 몰입되게 하는 힘입니다. 마음을 잡아당겨 느끼는 비중이 크게 만드는 힘입니다. 심리적인 무게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끊어지게 됩니다.
요즘 아버지들의 존재감 상실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돈 버느라 밖에서 지내다 보면 가정은 엄마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아이들도 엄마만을 찾습니다. 은퇴를 해도 아버지의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존재감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또한 한반도를 중심으로 급속히 돌아가는 외교 상황에서 '패싱'이라는 말이 자주 들려옵니다. 패싱은 역할에 대한 기대가 없이 간과되고 지나쳐버림을 말합니다. 제일 많이 들리는 것은 일본 패싱, 중국 패싱 등이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외교에서 존재감을 살려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본의 언론들조차도 자국의 한반도 외교의 위치에 대해서는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속담을 써서 '모기장 밖의 모기'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미 밖으로 몰려나서 패싱이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외교 현황에 대해서는 존재감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믿음에도 존재감은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눈 뜨고 생활하는 동안에 항상 활성화 되고 있는 믿음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거래처에 있든 살아 움직이고 있어야만 합니다. 활성화 된 믿음의 특징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대상들보다 하나님에게 더 큰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활성화 된 믿음입니다.
동창회를 가보면 어떤 친구는 같은 반이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기억이 안날 때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객관적으로 비중이 없어서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즉 하나님을 더 크고 우선적인 존재감으로 느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다른 대상들에 대한 패싱이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활성화 된 상태에서는 배우자나 자녀 혹은 사업에 대해서조차 패싱이 일어납니다. 이들보다도 하나님의 존재감이 더 우선적으로 느껴지면 하나님에 대한 심리적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존재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존재감을 크게 느끼면 하나님 패싱이 나타나게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혹은 돈이나 건강 문제의 존재감을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먼저인 것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 패싱이 일어날 때에 나타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패싱될 때에 세상에 대한 존재감은 반드시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인생으로 바꾸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감을 강하고 우선적으로 느끼면 이와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짐스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가지를 않고 깃털처럼 가벼운 인생살이를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존재감은 부담으로 바뀌지만 하나님의 존재감은 세상의 모든 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역사입니다.

1절을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서가 아닌 잠언을 읽는 기분이 들게 하는데 8장 전체를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는 가운데 지혜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잠언에서 보아왔던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내려오는 판단과 생각을 들으려는 마음 상태입니다. 지혜는 문자화된 정보나 지식이 아닌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물이 흐르듯이 끊임없이 나를 향하신 뜻과 생각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흐름에 대해서 마음의 귀를 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민수기 6장 25~26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편 4편 6절에서도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하였으며,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하늘을 향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다’라고 표현하였고, 민수기나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져서 마주하게 되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즉 지혜자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앙망하는 상태입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하늘 기운의 흐름을 받아내려고 준비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땅에서 눈앞에 보이는 대상들의 존재감이 패싱 되어야만 합니다. 가족이든 사업이든 건강 문제이든 모든 것들의 존재감이 패싱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감이 우선적으로 마음에 자리 잡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우선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돈 문제가 마음의 존재감으로 자리를 잡았다면, 돈이 미친 존재감을 발휘하여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패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패싱시켜 놓고 돈 문제에 대한 해결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헛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선적인 존재감이 되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지혜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감을 최우선시하는 마음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면대면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시선을 마주할 때에 평강과 은혜가 흐르고 그 결과로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 하반절에 ‘그의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납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즈’라는 단어로써 강한 힘을 의미합니다. 즉 ‘얼굴이 사납다’라는 것은 얼굴이 굳어질 정도로 강력한 힘이 배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혜자로서의 마음을 가지자 사나움이 변한다고 하는데, 얼굴이 사납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대해 더 우선적인 존재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치 드라마에서 조연이 명연기를 할 때에 그 존재감이 엄청나게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보이는 것들에 대해 우선적인 존재감을 느끼면 그것들은 모두 다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

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것들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담을 견디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만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해야만 합니다. 또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담이기에 얼굴에 사나움이 배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하게 힘을 주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선적 존재감의 대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눈앞에 두고도 자녀의 존재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임할 수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존재감을 보다 우선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를 은혜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의 존재감을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훌륭하게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은 삶을 힘들게 만들뿐더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감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말한 후에 2~4절까지는 왕과 신하에 대한 관계를 말합니다.
2절을 보면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왕은 솔로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왕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음을 인정하기에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라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충성심 이전에 하나님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대표적 존재입니다. 왕과 함께 있다면 주변에 무엇이 있든지 존재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왕의 얼굴을 살피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패싱이 일어납니다. 왕을 대하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최우선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 상태가 될 때에만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은 끊임없이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치 왕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에 솔로몬 왕이 계시다면 어떻겠습니까? 방금 전까지는 배우자에게 신경을 쓸 수 있었지만, 왕이 있는 시점에서 배우자를 우선시할 수 없습니다. 설령 몸이 아파서 꼼짝 못하고 누운 사람일지라도, 왕이 오셨으면 자신의 아픔보다도 왕을 우선시하여 몸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앞에 왕을 모신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감을 마음에 담으면 삶에는 부담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고, 모든

일들은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물놀이를 하듯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니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5~6절을 보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변하나니 /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짐이 되어서 스스로 책임지고 의무감을 가지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판단을 놓치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업을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에 사업은 짐이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는 다르기에 충돌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화가 심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그르쳐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패싱한 죄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변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최우선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패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판단이 흘러 들어오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7~8절에 보면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패싱하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우선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염려는 바람을 잡아서 방향을 바꾸려하는 것과 같이 허무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거나 무슨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비전이나 꿈이 그러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큰 비중의 존재로 느껴야만 합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장래에 있을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때와 판단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인정하지 못한 채 미래의 꿈을 좇아 살아갑니다. 혹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은 지금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때와 판단을 거역하고 그르치는 짐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감을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성전의 번제단과 주님의 십자가가 해결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세상의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좋게 여기든 나쁘게 여기든 판단을 즉각적으로 해나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대상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존재감을 느끼는 나를 무조건 십자가에서 죽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부활

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이것이 지혜의 마음 상태입니다. 믿음의 상태는 지혜의 상태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십자가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감을 인정하는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눈에 들어온 것들이 하나님을 패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틈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죽었음을 고백한다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들에 핀 백합화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그들의 행동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죽었음을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존재감은 극대화되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신비로운 영적 비밀을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패싱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존재감은 극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건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유혹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존재가 되게 하시므로 이 세상을 깃털처럼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